

# 중앙-지방, 일자리창출 모색

### 정책협의회서 정책 공유·방안 논의

### 김일재 행정부지사, 마을기업 관련 건의

지역의 좋은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정책협의회가 김부겸 행정부총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및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일자리위원회,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정책추진 방향 및 지자체의 협조사항에 대한 설명 후, 시도별 우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공유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마을기업, 정보화마을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마을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방안에 대해 건의했다. 현재 각종 마을사업은 국토 균형발전 전을 도모하고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농어촌 과소화 및 고령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좋은 목적을 갖고 도입되었고, 실제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지사는 2년차까지만 재정이 지원되고 3년차 이후는 정부 지원이 끊겨 자립이 어렵고, 폐업이 속출하는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

다. 전북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재원을 투입해 전국최초로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 마더쿠기, 정읍 공사랑 등 전라북도 우수 마을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지원기업의 매출증가(평균 17.1%)와 일자리확대(평균 34.5%)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심보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일자리창출에 좋은 효과가 있는 좋은 건의사항이라고 말하며, 각 소관 부처별로 예산, 법률관계를 잘 검토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진성 기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6일 도청 공연장에서 '함께하는 성평등 모두가 행복한 전라북도'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2017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송하진도지사와 김광수 국회의원, 황현 도의장, 신종화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참석자들이 성평등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 도 대표 생생마을 4개소 선정

임실 치즈마을·완주 오성마을  
임실 두월마을·순창 방축마을

제4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전라북도 대표 생생마을로 임실 치즈마을, 완주 오성마을, 임실 두월마을, 순창 방축마을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10면)

이번 콘테스트는 지난 5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16개 마을주민과 생생마을 만들기 관심이 있는 도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콘테스트는 마을단위 4개 분야(체험·소득·문화·복지, 경관·환경, CAC·깨끗한 농촌 캠페인)에 대해 나눠 1차 서면 현장평가를 통과한 마을의 생생마을 만들기 우수사례 발표와 주민들이 틈틈이 갖고 닦은

마을연극, 다듬이 공연, 합창공연, 마을상품전시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콘테스트 결과 분야별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 체험·소득 임실 치즈마을 ▲ 경관·환경 완주 오성마을 ▲ 문화·복지 임실 두월마을 ▲ CAC 순창 방축마을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에서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생마을 1,000개 만들기 목표

표로 현재까지 700여 개의 생생마을을 조성했다"며, "마을 통합 지원조직인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농림부가 주최하는 전국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수

상하는 등 만들기 정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농촌의 미래를 위해 곳곳에 농촌을 지켜온 주민들과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분야별 최우수상은 받은 4개 마을은 오는 8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한편, 콘테스트에 참가한 마을 주민들은 "콘테스트를 통해 다른 우수 마을들의 장점을 공유함과 동시에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다"며 참가 소감을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 전국체육대회 준비 '일사천리'

### 45개 경기장 보수·대회 상징물 선정 등 차질 無

전북도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를 2018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최종 결정주체인 대한체육회에 대회기간 신청서를 제출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회기간 신청을 위해 국내·외 대규모체육행사 사례분석, 개막일, 날씨, 학사일정(도교육청), 축제일정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도교육청·장애인체육회, 도교육청, 시·군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에 따라, 전국체육대회는 내년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로, 장애인체육

대회도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기 확정)하기로 하였고, 최종적으로 대회일정은 이번 7월달에 전국종합체육대회위원회(대한체육회주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주 개최지 익산시를 중심으로 도내 전 시·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설치한 전국체전준비단(단장, 고재현)에서는 대회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구성완료, 체전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등) 개발, 종목별 경기장배정 및 체전시설확충(신설, 개보수), 국가예산

확보 등 단계별 로드맵에 의거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경기장 시설확충에 총 633억원을 들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4개 종목 45개 경기장 개·보수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장 진입도로 정비를 위해 확보한 행사부 특별교부세 20억원과, 경기장 개·보수 관련 국비 116억원을 조기 집행했다.

고재현 전국체전준비단장은 "도에서 15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47개종목, 69개소 경기장시설과 환경을 완벽하게 정비하는 것은 물론 전북도발광광을 널리 알려서 온 국민이 즐기는 국민화합 대축제로 만들어 모두의 기억 속에 남는 전국체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 도서관위, 내달 8일까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접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수원에서 정치·사회분야 민주적 리더 양성을 위한 '제10기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수강생 40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연수원 홈페이지(<http://www.civicedu.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이다. 이번 제10기 민주시민

정치아카데미는 8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에 무료강좌로 운영된다.

김홍신 소설가가 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2013년 3월 처음 개설되어, 현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3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는 정치·사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

적 지식과 민주적 소양을 익히고 정치 사회 분야 현장체험 등을 통해 참여와 나눔,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지닌 민주 시민 리더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교수진은 분야별 명망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프로그램은 선거, 정치, 외교, 국방(통일), 경제, 사회 등에 관한 전문 과정과 역사, 인문, 문화, 언론 등 교양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도서관위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민주적인 리더를 희망하고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222필지

전북도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 후 30일간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 신청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62만4,202필지이며(도 전체 필지 376만6,720필지의 69.7%),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지가검증, 이후 산정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을 끝내고,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5월 31일 결정공시한 바 있다.

공시 이후 30일간(5.31~6.29)의 이의 신청기간에 222필지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전년(198필)보다 24필지가 증가한 것이다. 올해이의신청 유형은 지가 상향요구가 134필지, 하향요구가 88필지였다.

도내 이의신청이 많은 곳은 완주군 47, 남원시 29, 진안군 28, 정읍시

23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의 올해 지가변동율은 완주가 9.16, 남원 5.24, 진안 6.20, 정읍 5.38%로 도내 평균지가상승률 4.75%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전년도(2016년)의 이의신청은 198필지를 접수해 처리결과는 상향조정 46필지, 하향조정 25필지, 기각이 127필지였다.

올해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7월 28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장 군수가 그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개발청, 아프리카 대상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 전개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2023세계잼버리 개최지 확정을 앞두고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전개한다고 6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7월 6일~12일 전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남아프리카지역 총회에 참가해 각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새만금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3세계잼버리 개최지는 오는 8월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아제르바이잔)에서 스카우트회원국(167개국)의 투표로 결정되며, 현재 새만금은 폴란드의 그단스크와 경합을 벌이고 있다. 만금개발청 김형렬 차장은 "개최지 결정이 1달여 남은 상황에서 2023세계잼버리를 새만금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전북도·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